남원시, 라이프케어 산업 성장 '가속'

일반산단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업 세제·재정, 정주여건 개선
대규모 투자 유치·균형 발전 기대
교육발전특구 연계체계 구축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남원시 남원일반산단 전경.

남원 일반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라이프케어 기업유치에 탄력이 붙게 됐다.

남원시에 따르면 산자부는 최근 남원 일반산업단지 51만1706㎡(15만5062평 규모)를 기회발전특구로 추가 지정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부가 비교우위 산업을 정해 기업을 유치하고 계획을 수립한 뒤 신청하는 상향식 특구 개념이다. 기업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을 말한다.

남원 일반산단에서는 바이오 포함 라이프케어 산업이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연관 기업 투자유치에 탄력을 받게 됐다.

특구 내 창업과 사업장 신설 땐 ▲소득·법인세 5년간 면제+추가 2년간 50% 감면 ▲취득세 75~100% 감면 ▲재산세 5년간 75~100%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10% 지원 확대 ▲입주기업 대상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지원 등 투자기업에 파격 혜택이 부여된다.

시는 앞서 특구 지정을 위해 전북도의 6대 혁신성장산업이자 남원 지역특화 전략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라이프케어를 비교우위 산업으로 정했다. 이후 남원일반산단을 산자부에 신청했다. 이와 함께 한미양행 등 총 10개 기업과 880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반도 닦아 왔다.

또 '기업 및 투자유치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국내 기업 보조금 지원 비율 5% 상향 ▲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비율 15% 상향 ▲지역특화산업 특별지원 ▲투자기업의 물류비 지원 상향(3억→5억 원) ▲관외 기업 이주 직원 보조금 지원 등의 자체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바이오·헬스케어 관련 기업 및 연구시설을 기반으로 한 실증 테스트베드와 관련 산업단지를 활용한 구체적 성과 도출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지방시대 양대 특구 중 다른 하나인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 지역 교육을 혁신하고 이를 통해 성장한 인재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역특화 전략산업 육성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 만큼 남원 일반산단 내 대규모 투자유치와 지역균형발전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폭염 속 논·밭 일 안돼요" 드론 띄워 경고방송

정읍시, 드론 예찰단 운영
오후 2시~4시…온열질환 예방

정읍시가 폭염 사각지대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드론 활용 예찰단을 운영한다. 〈정읍시 제공〉

정읍시가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농업인의 보호와 현장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드론 예찰단을 운영한다.

정읍시는 드론 활용의 '농업 현장 예찰단'을 구성해 폭염에 취약한 논밭과 비닐하우스, 고령농이 작업 중인 야외 작업장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9월까지 폭염이 극심한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를 중심으로 예찰을 진행해 온열질환 예방에 집중한다.

예찰단은 드론에 열화상 카메라와 스피커를 탑재해 농업인의 체감 온도를 실시간 감지하고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니 즉시 휴식하시기 바랍니다"란 경고 메시지를 현장에서 반복 송출한다.

차량 접근이 어려운 산간 농지나 넓은 밭도 드론을 활용하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찰 활동은 정읍시 4-H연합회 소속 청년농업인 8명으로 구성된 인력이 담당한다. 2인 1조로 편성된 예찰조는 폭염특보 발효 시 매일 순환근무로 드론을 띄우고 현장 상황을 점검한다.

드론을 통해 확인된 영상은 현장의 온도, 작업 유무, 위험요소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이상 징후가 감지될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응급조치를 취하고 상황에 따라 인근 주민이나 119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긴급 대응할 방침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기후변화로 폭염일 수가 증가하는 만큼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 예찰은 농업인의 안전 확보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재난 대응 행정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인천공항' 고속버스 운행 확대

오늘부터 하루 2→5회…휴가철·명절 불편 해소

정읍시는 정읍~인천공항 간 고속버스가 1일부터 하루 5회로 확대 운행된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그동안 하루 2회 운행되던 고속버스를 시민 수요와 교통 접근성 향상 요구에 따라 증편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휴가철과 명절처럼 공항 이용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이번 조치가 시민들의 실질적인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운행시간을 인천국제공항의 항공편 출·도착 시간대와 연계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원하는 시간대에 공항을 오갈 수 있는 선택지가 크게 늘었다.

해당 노선은 고창터미널을 출발해 정읍공용버스터미널과 김제를 경유한 뒤 인천공항 제1·제2여객터미널까지 운행된다. 총 소요 시간은 약 3시간 30분이다.

운행 시간표와 예매는 티머니고(GO) 앱 또는 정읍공용버스터미널 안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 곳곳 '구강 진료 버스' 찾아갑니다

연말까지 장애인·고령자 의료 접근성 낮은 계층 의료 서비스

남원시가 읍·면 지역 주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구강이동진료차량'을 본격 운영한다.

구강이동진료차량은 지역 내 구강보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고령자, 농촌지역 주민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게 구강예방서비스를 제공, 구강질환 예방과 조기치료로 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공모사업에 남원시가 공모, 같은 해 9월에 국비 지원이 최종 확정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이번에 도입된 차량은 디지털 기반의 이동형 치과 진료실이다. 현장에서 바로 무료 구강검진, 스케일링, 불소도포, 틀니 관련 상담 및 관리법 안내, 칫솔질 등 올바른 구강관리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읍·면지역(주로 경로당, 마을회관, 사회복지시설등)을 순차적으로 순회하며 치과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구강검진과 예방 중심의 치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총 20개소 이상을 방문해 약 3000명에게 치과서비스를 무료 제공할 계획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군, 연막소독 대신 연무소독 전환

통합방역체계 가동

고창군이 감염병 예방과 위생해충 퇴치를 위해 기존 연막소독을 연무소독으로 전면 전환하고, 보건소 중심의 통합방역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고창군은 지난 4월 보건소 통합방역 발대식을 열어 읍·면별로 분산 운영하던 방역 체계를 보건소 중심의 통합체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방역 효과를 높이고 주민 불편과 건강 우려를 줄이기 위해 연막소독 대신 연무소독 방식을 도입했다.

연막소독은 경유에 살충제를 섞어 연기를 내는 방식으로 시야 방해와 매캐한 냄새, 유해물질 노출 문제로 주민 불만이 많았다.

반면 연무소독은 의료용 살충제를 물에 희석해 미세 입자가 해충 서식지 깊숙이 침투하도록 해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연기와 냄새를 크게 줄였다.

현재 고창군보건소는 5개 방역기동반을 운영하며 관내 14개 읍·면 1411개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주 1회 연무소독을 시행하고 있다.

마을별 세부 방역 코스를 체계화해 촘촘하고 균형 잡힌 방역망을 구축했으며 최근 기온 상승에 따른 해충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지, 공원, 야외활동 지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방역을 강화해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고창군,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단속

고창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북특별자치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 부안해양경찰서와 함께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을 집중단속하는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통시장과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등 여름철 방문객이 증가하는 지역에서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품목은 뱀장어(민물장어), 미꾸라지 등 여름철 보양식 수산물과 함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잦은 활 참돔, 낙지, 가리비, 냉동 오징어,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냉동 고등어 등이다.

점검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등 원산지 표시법 준수 여부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즉시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